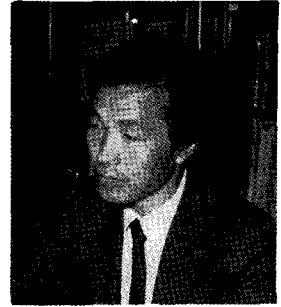


8 월의

육계 전망



장 민 기
(본 회 부 회장)
(버들농원 대표)

◎ 개 황

년중 최고의 소비철인 8월, 특히 육계가격은 기온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온의 상승과 소비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다행히도 중순에 말복이 있고 그다음날이 광복절이 있는 중순까지는 30℃가 훨씬넘는 불볕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대 예보가 있듯이 소비는 증가할 것이고 반면 더위로 인한 폐사발생, 증체도 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상당히 가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순이후는 소비감소, 증체량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분 석

1) 7월의 닭값이 1,100원대는 몇번 형성되리라 예상하였으나 잦은 장마비로 인해 소비에 영향을 미쳐 닭값이 오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2) 6월의 전기사료가 전년도 동월대비 19%, 전월대비 10% 정도 증가하였다. 8월의 소비가 년중 최고인 것을 감안하면 문제될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 같아 가격은 안정세내지 강세를 유지할 것 같다.

3) 입추경향을 살펴보면 추석과 아시안게임 10월의 황금연휴를 겨냥한 입추열기가 활발하여 병아리가격이 내릴줄을 모르고 있어 많은 물량이 입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8월말, 9월초는 시기적으로 닭고기소비가 감소하므로 이시기의 육계가격은 약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8월들어 병아리가격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해 노계의 출하가 활발해지므로써 물량감소가 이루어져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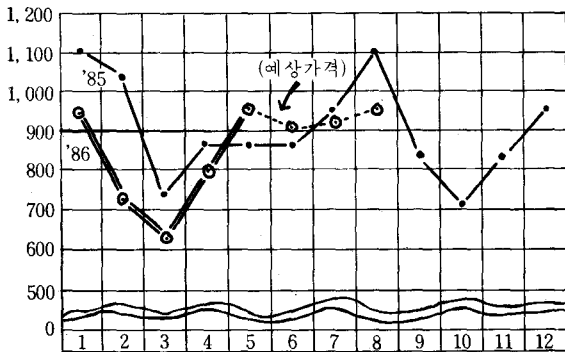
그러나 병아리가격이 다시회복된다는지 할 경우에는 물량이 증가하므로 병아리가격의 변동에 예의주시해 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병아리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7월말까지는 추대가 좋아 병아리 출하물량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은 복물량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으나 그 이후로 병아리 가격이 조금하락하는듯 했으나 다시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어 물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8월말이나 9월초순은 가격이 약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며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업무계획이 절실히 요청되며 육계 사용자가 단합해서

스스로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길 이란 것을 부탁하고 싶다.

6) 8월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 지기 시작해서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된다.

85~86 월별 육계가격



83~86사료, 병아리(생산수, 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	사 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잠 재 력 (천수)	가 격 (원/kg)
		전기	후기			
1	83	18.8	29.4	8,659	12,600	1,124
	84	13.4	25.9	7,394	16,521	995
	85	19.6	27.3	11,500	14,596	1,115
	86	21.0	31.6	14,000	14,500	966
2	83	20.8	31.4	10,284	13,070	1,047
	84	12.9	16.5	9,356	17,551	1,134
	85	19.8	29.7	12,000	14,519	1,050
	86	21.1	32.8	14,000	15,200	740
3	83	27.3	41.5	13,130	13,880	739
	84	23.3	19.7	12,922	18,534	1,353
	85	22.9	33.0	13,000	15,164	750
	86	24.5	36.7	16,000	16,500	650

4	83	23.1	43.8	14,004	14,655	739
	84	26.7	30.2	14,060	19,158	1,048
	85	23.6	35.4	14,500	15,719	870
	86	26.4	38.0	16,800	17,700	800
5	83	29.2	43.9	13,608	14,845	789
	84	29.9	42.0	16,196	18,809	785
	85	26.1	36.9	15,500	16,500	870
	86	31.0	37.9	19,350	18,600	957
6	83	32.1	48.4	15,420	14,239	902
	84	29.0	44.6	13,022	18,124	733
	85	28.7	38.9	16,500	17,000	870
	86	34.2	43.7	20,625	19,000	898
7	83	28.6	49.6	14,464	12,898	876
	84	23.7	41.5	11,433	16,668	987
	85	28.1	43.5	16,000	14,500	950
	86	추32.3	추56.8	23,970	17,300	895
8	83	26.6	44.9	12,609	11,893	899
	84	20.1	28.8	11,029	14,686	1,180
	85	25.3	34.5	14,500	13,000	1,100
	86	추30.0	추45.0	추18,750	15,600	1,050
9	83	23.9	48.9	13,340	11,469	802
	84	19.5	29.1	10,038	13,408	977
	85	22.0	38.5	12,000	12,500	840
	86		38.5		13,000	
10	83	22.5	43.3	11,361	11,362	608
	84	19.4	29.5	9,980	13,064	900
	85	20.4	35.7	11,500	11,000	714
	86				14,900	
11	83	29.3	37.5	10,373	13,389	747
	84	19.6	28.1	10,483	13,810	952
	85	21.4	31.3	11,000	11,000	831
	86				13,000	
12	83	17.9	38.8	8,193	15,069	772
	84	20.8	33.5	10,654	14,349	951
	85	23.7	37.2	12,800	11,500	950
	86					
계	83	296.1	501.4	145,447	159,811	845
	84	258.3	369.4	136,567	194,682	1,000
	85	281.6	421.9	160,800	177,000	

※표에는 85년도 이후부터 특수사료 포함되어 있음.

표 2.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생산량 순별비교

사 료	월 순 년도	4			5			6			7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전 기	85	2,855	2,748	2,523	3,360	2,859	3,295	3,066	3,385	3,518	3,332	3,071	3,231
	86	2,149	2,038	2,591	2,500	2,350	3,165	2,673	3,429	추(3,700)	2,986	3,561	3,687
후 기	85	2,813	3,282	3,285	3,060	3,385	3,912	3,182	3,451	4,264	3,962	3,984	4,258
	86	3,663	2,146	3,490	2,417	2,545	3,686	2,802	3,201	추(3,900)	3,990	4,282	5,352
계	85	5,668	6,030	5,808	6,420	6,244	7,207	6,248	6,836	7,782	7,294	7,055	7,489
	86	5,812	4,184	6,081	4,917	4,895	6,851	5,475	6,630	추(7,600)	6,976	7,843	9,039